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7년은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인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세는 탄핵 정국의 촛불 집회, 개헌 담론과 대선 정국, 그리고 지도자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탄핵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검과 탄핵의 결과가 다르면 대립과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개헌 담론이 부각되면 정당정치는 사라지고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선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념 경쟁의 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념 경쟁에서 진보는 평화 안보를 강조하고 보수는 대결 안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 안보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두 차례 분수령 예상되는 내년 한반도 정세

탈냉전적 사고이다. 대결 안보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냉전적 사고이다. 보수가 안보를 잡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지만 직접 선출을 선호한다. 개헌은 첫잔속의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는 6월 중 출범이 예상된다.

북한 국내정세는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 강화가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의 생일(1월 8일), 김정일 출생 75주년(2월 16일 광명절), 김일성 출생 105주년(4월 15일 태양절), 인민군 창건 85주년(4월 25일), 백두산위인 칭송대회(8월 중), 김정숙 출생 100주년(12월 24일) 등 정주년의 정치 행사가 잡혀있다. 김정은 위원을 김정일과 김일성의 동격 반열에 올려놓는 우상화 작업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군사 강국을 선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보유국의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 군축협상 또는 평화협정 논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는 자강력 제일주의와 북중 간의 교류 협력을 유지하면서 6.28 조처와 5.30 방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장마당을 통해 가능

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생필품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유지시킬 것이다. 고위관료들에게는 공포정치를 펼치면서 주민들에게는 친화 정책으로 다가가는 이중적인 접근이 예상된다.

2017년 남북관계는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실패했다. 남북한 간 신뢰도 쌓지 못했고 대결만 조장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커녕 핵능력 고도화를 방조했다. 북한 주민들은 대남 동경심보다 적개심이 커지고 있다. 남북한 모두 지난 10년 동안 대립과 대결로 피로감에 쌓여 있다.

남한의 차기 정부 출범은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북한은 미북 대화 분위기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할 것이다. 남한은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하다. 북한은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성과적 달성이 필요하다. 남북한 모두 경제 발전의 활로로써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협력이 중요하다. 2~3월 실시 예정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도전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2017년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전망은 유동적이다. 미중 관계의 악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주석의 민족주의는 충돌을 예고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책임론을 주장하고 중국은 북미 간의 직접 해결을 강조한다. 미러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관계는 트럼프와 푸틴의 신뢰에서 출발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커지만 러시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를 활용할 것이다.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핵 문제보다 남치 문제가 우선순위가 있다. 미일동맹의 강화 속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는 등거리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가 부각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예상된다.

2017년도 한반도 정세는 두 차례의 분수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차적 분수령은 2~3월 실시 예정인 한미 키리졸버훈련과 독수리훈련이다. 2차적 분수령은 우리의 차기정부 출범이다. 역사는 진보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이끈 사례가 많다. 국민과 남북이,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대북 정책을 펼친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종교칼럼

망년과 망각



양 홍 서광교회 협동목사

살아서 365일을 살면 일 년을 살게 되고 일 년이 거듭되면 60이 될 수 있고 7, 8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을 점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번 가면 아니 오는 그 하루가 금싸라기같이 귀하게 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산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일생'이라고 한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삶을 인간에게 단 한 번만 살도록 하셨다. 다시 태어나서 두 번 세 번 인생을 살 수 없게 하셨다. 미국 독립 전쟁 때 순국한 '네이만 헤일'이라는 젊은 장교의 비문에는 그가 남긴 유서가 새겨져 있다. "나는 내가 내 조국을 위해 바칠 생명이 오직 하나뿐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고 그는 하 나뉘에 없는 생을 가지 있게 버렸다.

얼마나 심각한 인생, 소중한 시간들인가? 이런 역사관, 인생관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이 있다. 그 많은 날 가운데 하루를 택하여 연말이라 했고, 그 날을 받는 다음 날을 새해라 했다. 누가 만든 법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시기에 이런 생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보려는 간구가 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는 때 주님이 오시든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두려움이 없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죽기 일 년 전 유서를 쓰면서 그의 전 재산을 총살했던 가정부 '카타리나'에게 준다고 했다. 그는 그때 변호사의 입회야 필요치 않느냐는 질문에 "천국이나 지상에서나 또는 지옥에서든 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공증인의 공신력보다도 내가 훨씬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했다. 참으로 공명정대한 그의 삶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자신 있는 삶이었다.

2016년이 지나간다. 보통 보내는 해를 다녔던 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이다. 촛불을 든 채 이 해가 지나간다. 찬송가 가사를 쓴 데니슨의 찬송 시어가 실감난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이 목은해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또 바울은 "앞의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다" 했다. 참으로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또

없을 것 같다.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자. 창조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억력도 주시고 망각하시려는 은총도 주셨다. 잊어버리는 은총도 주셨다는 말이다. 망각이 있어야 새 기억도 있지 않을까? 독에 물을 채우려면 독은 물을 퍼내어 버려야 한다.

어렸을 때 기억이다. 조부님께서 머슴과 가족들을 동원하여 선달그믐이 다가오면 온 집안의 먼지를 털고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던 일, 어머니와 두 고모님들을 시켜 기왓장 가루로 뚝뚝을 하루 종일 금빛 나도록 닦게 하는 일을 보며 자랐다. 지금엔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우리 모두 목은 먼지를 털어버리자. 유쾌하지 못했던 일, 불행했다 느껴지는 마음, 실패, 거지, 더러운 것, 웅졸했던 생활들을 깨끗이 씻자. 귀로 듣고 눈으로 본 행동으로 인해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버리자. 그렇지 않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다. 힘과 용기로 새해를 맞이하자. 용기를 잃으면 정부를 잃는다.

우리가 일 년을 다 보내는 시기를 연말이라고 하고 망년이라고도 한다. 연말을 망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의 일을 다 잊어버리자는 뜻이니 망년과 함께 망각의 은혜가 넘치게 하자.

기 고



임 영진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전남지역 마한 역사의 현재적 의미

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도굴이 성행하게 돼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비운의 고분군이 됐다. 1938년 두 번째 발굴을 위해 찾아왔던 일본인 학자마저 지난 20년간의 도굴의 참상을 목불인견(不忍親見)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다.

반남고분군에는 왜 그렇게 거대한 고분들이 모여 있을까? 그 규모를 보면 5세기 경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도읍지의 고분들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커다란 옹관들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분들이다. 하지만, 이 지역 마지막 마한사회는 369년 백제 근초고왕에게 병합됐다는 이병도 박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백제의 간접 지배 아래 제한적으로 발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통설이었다. 또한 옹관묘에 이어 5세기 후반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석실묘는 직접지배를 위해 백제에서 퍼진 관리들이 남긴 것이라고 인식돼 왔다.

그러나 고고학적 조사·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기 시작했다. 1990년 11월에 개최된 '제5회 전남고고학 심포지엄'에서 전남지역 초기 석실묘는 임피, 구조, 부장품 등 기존의 마한

옹관묘 세력을 그 주인공으로 봐야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통설을 뒤집는 새로운 견해가 당장 수용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발굴되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았다. 1996년 8월 나주 복암리 3호분에서 5세기 말에 조성됐던 석실 안에서 4기의 옹관이 발굴된 것이다. 이 석실의 주인공들은 직접지배를 위해 백제에서 파견된 관리가 아니라 옹관을 쓰는 기존 마한 세력자임이 확인됐다. 복암리 3호분은 1998년까지 전면 발굴이 이뤄져 42기의 목관, 옹관, 석실, 석곽으로 구성된 가족묘라는 사실이 확인, 6세기 초까지 마한사회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게 됐다. 또 그와같은 새로운 자료를 전시하기 위해 복암리 3호분의 전시관 건립이 추진됐다. 드디어 지난 4월 30일 인근 중량마을 앞에 야담한 전시관이 문을 열어 실물 크기로 재현된 고분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경주 천마총은 고분 자체를 전시장으로 꾸밀 수 있었지만 복암리 3호분은 안전상 문제로 그럴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내년 반남고분군이 발굴되지 100년이

된다. 1997년 금동관이 발굴된 지 80년만에 국보 제295호로 지정됐고, 2005년에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2013년에는 국립나주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고대문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두 국가기관이 함께 있는 것은 경주, 부여, 나주 뿐이다. 그 자체가 전남지역 고대사회의 역사적 성격을 웅변해 주고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남지역 마한사회 문제는 1500여년 전의 일이지만 그저 지나간 역사에 그치는 게 아니다. 오늘날날 이 지역과 주민, 그리고 향후 이곳에서 살게 될 후손들에게 이어질 역사다.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와 달리 독립적 사회와 독자적 문화를 이룩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양자공도' 같은 간접적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마한인들이 남겼던 고고학 자료는 6세기 초까지 이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했음을 묵묵히 증명해주고 있다.

반남고분군 발굴 100주년을 맞는 2017년을 맞아 전남지역 고대사회의 역사적 가치를 밝히고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또한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과 마찬가지로 마한문화권이 설정돼 지역 발전의 역사적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

社說

연말연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관심을

최소실 국정 농단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수선한 연말이다. 사회적 약자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이들을 위한 후원금과 성금도 관례처럼 이어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개인 기부의 경우 현재저 감소하고 있다 한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광주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지난 28일 현재까지 집계한 모금액(27억7871만 원) 기준으로 65.4도를 가리키고 있다. 전국 평균(52.2도)보다 10도 이상 전망된다.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가 부각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예상된다.

2017년도 한반도 정세는 두 차례의 분수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차적 분수령은 2~3월 실시 예정인 한미 키리졸버훈련과 독수리훈련이다. 2차적 분수령은 우리의 차기정부 출범이다. 역사는 진보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이끈 사례가 많다. 국민과 남북이,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대북 정책을 펼친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호남 풀뿌리 주승용 원내대표에 거는 기대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주승용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역시 4선의 조배숙 의원이 선출됐다. 이들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총 35표 중 과반을 득표해 경쟁자인 김성식·권은희 후보 조(組)를 누르고 신임 원내지도부가 됐다. 이들은 각기 전남과 전북 출신이다. 이로써 국민의당에서 호남색은 더욱 짙어졌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주 원내대표는 "제가 '호남 이미지'를 덧씌웠던 평가를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국면에서 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개혁보수신당의 창당으로 3당의 지위가 위협받는 시기를 맞아 내년 5월까지 원내에서 당을 이끌고 갈 조처차 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실제로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까딱 잘못하면 제4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호남조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신뢰를 보이는 게 우선 할 일

는 것인데 광주에서는 지난 27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개인 후원금 비율이 30%에서 22%로 떨어졌다. 전남의 개인 후원금 비율도 19%로 지난해(22%)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개인 기부와 성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때일수록 나누는 '십시일반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사회의 반영일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 약화로 이어져 노인·장애인 등 약자들이 버림으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웃이 무너지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붕괴된다.

생계난을 겪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말연시는 더욱 혹독하다. 이들을 우리 이웃으로 따뜻하게 보듬고 보살피는 온정이 더 필요한 이유다.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정이 그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나눔을 실천했으면 한다.

이러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 출신 '풀뿌리' 정치인으로 불린다. 1995년 전남도의원 선거와 이듬해 여천 군수 보궐선거, 그리고 1998년 여수시장 선거에서 '3번 탕탕 3번 당선'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여수를 지역에서 당선됐으며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4선에 성공했다.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보수 정당이 돌로 분열하고 원내 4당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이라는 평가가 많은 신임 주 원내대표에 거는 기대는 크다. 4당 체제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이룰 수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주 세력이 승리하는 데 주 선인 대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2월19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한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됐다. 총 투표자 3072만1459명 가운데 51.55%인 1577만3128명이 박 후보를 선택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8.02%인 1469만2632표를 획득, 108만496표 차이로 2위에 머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6년 12월30일,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온 '대통령 성적표'는 '참담' 그 자체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라는 신기록까지 달성했던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기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와 국론 분열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호는 이번 탄핵 사태 여파로 동력이 꺼진 채 표류 중이다.

4년 전 우리 국민은 '박근혜'라는 정치적 유망주에 가까이 투자했다. 문재인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회비용'보다 훨씬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둘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갈래 길 가운데 단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 나머지 다른 길을 걸어 볼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그 잃어버린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애초 기대했던 투자 수익은 물론 당연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던 기회비용마저도 속절없이 날려 버린 셈이다.

지금 국민은 신문과 방송을 보며 "이 사람이 과연 4년 전 내가 투자했던 바로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라는 신기록까지 달성했던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기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와 국론 분열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호는 이번 탄핵 사태 여파로 동력이 꺼진 채 표류 중이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만간 국민 앞에 또 '앞으로 5년간 국가를 운영해 갈'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새로운 선택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날아가 버린 기회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될' 선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공짜 점심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